

SK

전국 5대 권역에 석유제품 기술지원센터 오픈



SK주식회사가 고객들의 석유제품 사용에 관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고객만족 경영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SK주식회사는 지난 4월

25일 경인, 충청, 강원, 전남, 경남지역에 최첨단 다목적 실험실을 보유한 5개소의 기술지원센터를 오픈했다. 석유제품 품질관련 기술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기술지원센터를 오픈함으로써, 자사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과 고객이 사용중인 유류의 품질을 수시로 체크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의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등 지역 품질관리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SK주식회사는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기술지원센터의 교육전담인력이 열효율 향상을 통한 연료절감,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 등의 다양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교육은 올해 말까지 1천여개의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전 수요처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SK주식회사 김한준 수급조정담당임원은 “고객접점에서 당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고객의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유통부정을 억제해서 당사의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주식회사는 2002년까지 경북, 전북, 제주 기술지원센터를 추가로 오픈하여 품질관리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SK**최태원 회장,****상하이 브이소사이어티 포럼 참석**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에

서 ‘중국시장의 기회와 위험’ 이런 주제로 열린 ‘상하이 브이소사이어티 포럼’에 참석했다. 국내 CEO 23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33개 회원사간에 제휴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1백억

원의 공동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브이소사이어티 회원사들은 지난 5월 3일 목요포럼을 갖고 구체적인 중국 진출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SK**엔카 “내차보증” 서비스 개시**

작년 6월 중고차업계 최초로 ‘차량 진단’과 ‘수리보증’의 개념을 도입한 SK주식회사가 만든 중고차 사이트 엔카(www.encar.com)는 품질보증 제도를 대폭 확대한 ‘내차보증’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엔카가 선보인 ‘내차보증’ 서비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 번의 진단으로 때때로 발생하는 엔진/미션은 물론 타이밍벨트 고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무상수리가 된다는 것, 둘째, 문제 발생시 전국 2천5백여개 1,2급 정비소와 제휴를 맺어 전국 어디서나 즉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기간은 2~12개월이며 서비스 가입가격은 3~12만원이다.

타업체가 평소 한정된 정비소에서

주기적 차량진단을 받은 차량에 한해 부분적으로 서비스해주는 데 비해 엔카의 '내차보증' 서비스는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는 정비비를 전국 어디서나 전액 무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가입비용도 훨씬 저렴한 편이다.

S K 세계최초 코크저감기술 상용화



SK주식회사는 세계 최초로 각종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침전물인 코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독창적인 저감기술(PY-COAT™)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코크란 흔히 일상생활에서 후라이팬이나 석쇠 등을 장시간 가열시에 용기 바닥에 놀아붙는 검은색의 끈끈한 재와 같은 것으로, 에틸렌 제조공정, 방향족 제조공정 등 고온열 분해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화학공정에서 발생한다. 코크는 반응기벽에 침전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기 내부의 면적을 좁히고 원하지 않는 반응을 일으켜 공정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물질이다.

SK주식회사는 운전중 코팅기술(PY-COAT™)에 대한 국내 및 미국

특허를 획득했으며, 이미 국제특허협회의 승인을 받아 타국 특허획득시 소급인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작년 3월 미국 에틸렌컨퍼런스에서 이 기술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때부터 운전코팅법(PY-COAT™)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미 BBD사(BetzDearborn Inc.)와 지난 5월 16일 SK주식회사 본사에서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SK주식회사가 BBD사에 코크저감기술의 제조, 마케팅 및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BBD사는 SK주식회사에 매출액의 45~62%를 로열티로 지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양측은 곧 사업협력을 위한 공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S K 경유매연여과장치 일본에 기술판매

SK주식회사는 지난 4월 24일 본사에서 일본 이맥스사(E' MAX Japan co. Ltd)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개발한 경유매연여과장치 기술을 1억엔 판매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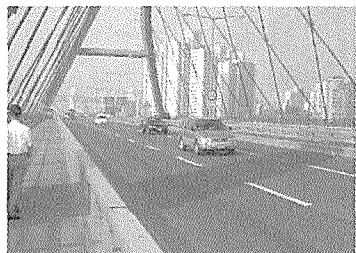
기술판매의 내용은 경유매연여과장치 기술의 ①일본 내에서의 독점사용권 부여 ②한국으로 제품역수출 금지 ③기술관련 개선사항 공동연구 ④향후 2년간 사업화활동이 없을 경우 독점권 박탈 등 SK주식회사측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양사는 향후 지속적인 협

력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맥스사는 제품을 생산,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에 수출할 계획이며 SK주식회사는 지속적인 기술지원/컨설팅관련 제공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맥스사는 매출 50억원 규모의 일본 환경장치 전문회사이다. 이 계약은 최근 일본 도쿄시가 2003년 4월부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모든 경유차량의 도쿄시 진입/통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급속히 전전했다. 미국, 독일 등 타 선진국들도 2005년 이후에 규제법안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예정이라 해당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S K 슈퍼팔트,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



SK주식회사가 만든 슈퍼팔트(분자 결합형 SBS고분자개질아스팔트)가 지난 4월 19일자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건설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 개발기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가 인정하는 제도로 국내 건설·토목 분야에서 최

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제도 개발기술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건설신기술 제도는 개발기술의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슈퍼팔트는 아스팔트 도로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바퀴 패임과 균열현상을 방지하여 도로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 시킬 수 있는 우수한 건설재료이다.

S K

TravelOK, The Korea Best-Web Awards 1위 웹사이트로 선정



TravelOK.com이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에서 제정하는 「2001 대한민국 1위 웹사이트 인증」 행사 중 여행 정보부문 네티즌 웹파워 1위 사이트로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는 2000년부터 매년 국내 인터넷 기업에 Best 웹사이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웹사이트 운영의 전략적 성공을 유도하며, 세계적 e-Brand의 육성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The Korea Best-Web Awards"를 시행하고 있다.

2001 대한민국 1위 웹사이트 인증의 종류는 첫째, 전문가 웹파워 인증(K-WPI: Korea-netizen Web Power Index)과 둘째, 네티즌 웹파워 인증(K-WPC: Korea-Specialist Web Power Criteria)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TravelOK는 우수한 성적으로 "여행정보부문" 네티즌 웹파워 1위로 인증됐다.

S K 교보문고, SK상품권 사용

국내 최대규모의 서점인 교보문고에서도 SK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K상품권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처가 늘어날 계획이며 이제부터는 SK상품권만 있으면 의식주 등의 해결에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 K

김한경 부회장,
경희대 경영자대상 수상

SK주식회사 김한경 부회장은 지난 5월 16일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에서 열린 경희 경영자대상 시상식에서 전문경영자 부문상을 시상했다.

김한경 부회장은 1968년 SK주식회사(당시 대한석유공사)에 입사한 이래 30여년을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핵심 브레이인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 선정됐다고 경희대측은 밝혔다.

올 9월부터는 겸임교수로도 강단에

설 예정이다.

S K 엔크린 새 TV 광고



푸른 새벽빛을 깨치고 비추어 들어오는 아침햇살 사이로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을 뿌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뒤로 하고 돌아본 푸르름이 한껏 펼쳐진 전남 보성 다원의 전경은 정말 답답한 일상에 찌든 도시인이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바로 그 곳이다. 엔크린 새 TV광고는 이렇게 푸르름을 가득 안은 가운데 펼쳐진다.

지금까지 엔크린 TV광고에서는 주유소를 배경으로 짧간 모자 주유원과 고객과의 애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려내어 엔크린보너스카드만의 강력한 고객 서비스를 강조했다.

이번 엔크린 새 TV광고는 더욱 친근하게 고객들에게 다가서서 업계 부동의 No.1 브랜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배경 아래 제작됐다.

LG-Caltex정유 북한 중유 공급

LG칼텍스정유는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가 실시한 국제입찰에서 2001년도 4차분 북한중유(B-C유) 공급자로 선정되어 중유 2만2천 톤을 북한으로 공급하였다.

이번에 공급한 물량은 황함량 2.0% 중유(B-C유) 2만2천 톤으로 가격조건은 톤당 157달러 수준(FOB 여수 기준)이다.

이번 북한 중유공급은 지난 4월24일 KEDO가 LG칼텍스정유를 비롯한 국내 정유사들과 비파-아모코(BP Amoco), 쿠오(Kuo) 등 국제 석유회사 및 종합상사들에게 국제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LG-Caltex정유

제 8회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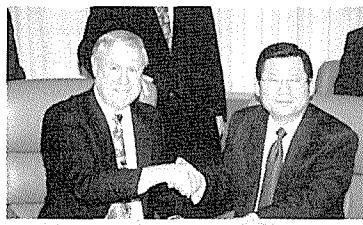


LG칼텍스정유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올림픽공원내 지구촌공원에서 환경부의 후원아래 제8회 어린이 환경미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환경미술대회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인터넷과 전화를

LG-Caltex정유

세계최대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 추진



族)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LG칼텍스정유는 금년 8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800억원을 투자하여 톨루엔에서 연산 35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Para-Xylene)과 연산 38만톤 규모의 벤젠(Benzene)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여 2003년 1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LG칼텍스정유는 아시아지역 폴리에스테르 및 TPA 시장의 증가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이들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증설을 계획하였다.

LG칼텍스정유는 이번 증설을 통해 생산된 파라자일렌 35만톤 중 15%정도인 5만톤은 국내에 판매하고 85%인 30만톤은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벤젠 38만톤 중 18만톤은 국내에 판매하고, 20만톤은 수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연간 3억7천만 달러의 수익(Revenue)을 올릴 수 있으며, 특히 수출을 통하여 연간 2억5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칼텍스정유는 공장 증설을 위해 엑슨모빌(ExxonMobil)과 톨루엔에서 파라자일렌과 벤젠을 생산하는 공정기술(PxMax Process)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티시(GTC)사와 파라자일렌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기술(GT-CrystPX Process)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LG칼텍스정유는 이번 증설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말에는 벤젠 70만톤, 톨루엔 20만톤, 파라자일렌 105만톤, 혼합자일렌 10만톤 등 연산 205만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방향족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갖게 된다.

▶ 업계소식(정유)

통해 선착순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되었고, 행사 당일에는 초등학생 6천여 명을 비롯, 학부모 등 2만여명이 참여하여 더없이 맑은 날씨 속에 그림솜씨를 겨루는 한편 모처럼의 가족나들이를 마음껏 즐겼다.

LG-Caltex 정유 34주년 창립 기념식



LG칼텍스정유는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 강남타워 아트센타에서 창립 34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허동수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67년 창사이래 34년동안 국내 정유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의 큰 변화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LG칼텍스 정유의 성장과 발전사를 회고하고, 성장의 원동력인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지난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후 박차를 가해온 각종 혁신활동의 성과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출한 천연가스 및 전력사업, 대체에너지, e비지니스 사업 등의 신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임직원들에게 이러한 비전과 사업전략

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역량이 무엇이고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피악해서 각 사업분야에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활동을 체질화할 것을 당부했다.

LG-Caltex 정유 6시그마(6 Sigma) 경영혁신 활동 성공적 정착



LG칼텍스정유는 지난 5월 22일 오후 LG강남타워 아모리스홀에서 <6시그마 그랜드포럼>을 열어 LG칼텍스 정유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경영혁신활동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6시그마 활동을 수익성 향상을 위한 내실 경영의 기반으로 더욱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열린 6시그마 그랜드포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6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및 우수 프로젝트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지난 1년 동안 배출한 핵심 추진인력 100여명에 대한 자격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발표한 6시그마 성과에 따르면 LG칼텍스정유는 99년 9월 6시그마 도입이후 2001년 4월까지 109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2000년 76억원의 세전이익을 실현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LG-Caltex 정유 제8회 어린이환경글쓰기대회 개최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은 지난 5월 13일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에 소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수시 거북공원에서 제8회 어린이환경글쓰기대회를 개최했다.

어린이환경글쓰기대회는 LG칼텍스 정유가 지역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자세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뛰노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 지역 84개 초등학교에서 참여한 약 2,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오전 9시 30분 개회식에서 발표된 글제에 따라 시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진지한 글쓰기작업에 들어갔다.

LG-Caltex 정유 넥스테이션, 바이엔조이와 업무제휴 체결

주유소 기반 인터넷 및 물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넥스테이션(대표 박한규, www.nextation.co.kr)은 지난 5월 16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인터넷 쇼핑몰인 바이엔조이와 업무 제휴를 맺고, 다음달 초부터 주유소를 거점으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제휴로 바이엔조이는 국

내 최대 규모의 물류 네트워크인 주유소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양질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LG-Caltex정유

주유소편의점 <조이마트>
“가정의 달 경품대잔치”



LG칼텍스정유의 주유소편의점 <조이마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운권 추첨을 통해 폭스바겐의 신차인 뉴비틀 주말 2박3일 이용권, 외식업체 시즐러의 무료이용권, 이코인카드, 휴일 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주말 가족나들이와 관련된 경품을 제공하는 “가정의 달 경품대잔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18일부터 6월 10일까지 LG칼텍스정유 주유소편의점 <조이 마트> 전국 174개 매장을 찾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LG-Caltex정유

황화수공정(SRU) 개조(REVAMP)
준공 기념 안전기원제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은 지난 4

인천정유

5월 정기조회 실시

인천정유 정기조회가 지난 5월 3일 오전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조회사에서 김태인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경영여건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임직원들이 불퇴전의의 각오를 갖고 경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인인 모두 안전관리자는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의식 생활화로 무재해 사업장도 건설하자고 당부했다. 또 “이번달 말에 1공장에서 T/A가 실시되는 만큼 부서별 긴밀한 업무협조와 치밀한 사전준비로 한 점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회사에 앞서 김태인 대표이사는 모범사원으로 선정된 안전환경팀 신언철 사우외 8명에게 모범사원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월 24일 황화수공정(SRU) 현장에서 개조 공사 준공을 기념하는 안전기원제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허동수 부회장을 비롯하여 명영식 공장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하고, 안전운전을 기원했다.

황화수공정은 각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를 유황으로 전환시켜 대기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을 절감시키는 공정으로, 이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공정은 처리량을 줄이거나 셧다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황화수공정의 개조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각 생산공정은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정유

중국 수입상 일행 방문

인천정유는 당사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 전문국영회사 Bunkering의 부사장와 일행 3명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장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원유도입에서 최종제품생산까지의 생산흐름을 살펴봤다. 또 제품이 저장돼 출하되는 과정 및 해상부두에서 일어나는 원유와 제품의 입출과정을 견학했다.

인천정유

임직원을 위한 경영설명회 개최

인천정유는 지난 5월 10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본관 대강당에서 경영

에쓰-오일

디젤 엔진오일 2종 '환경마크' 인증



폐유발생저감·연비개선

에쓰-오일 디젤 엔진오일 '드래곤 터보베스트'와 '드래곤 CH'가 지난 4월 9일 국내 최초로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97년 업계 최초로 '청정등유'가 환

경마크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 해 가솔린 엔진오일 '드래곤 SJ'에 이어 디젤 엔진오일 2종이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환경친화 경영 의지와 실천 노력을 다시 입증했다.

'드래곤 터보베스트'와 '드래곤 CH'는 제품 교환 주기가 길고, 폐유발생 저감 성능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아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특히 벤츠 규격 승인유로 지정돼 고급 자동차 고객에게 인기가 높은 '드래곤 터보베스트'는 자동차 회사들이 추천하는 엔진오일 교환주기에 비해 2배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우수 품질이 검증됐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영설명회는 경영지원팀장과 서울사무소 회계팀장이 진행했으며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선 현대정유·IPIC사·인천정유의 관계, 2000년 및 2001년 1/4분기 경영실적, 2001년 환율변동과 유가변동에 따른 영향, 경비절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인천정유

명화원 원생들의 벚꽃동산 나들이

인천정유는 지난 4월 18일 벚꽃동산 개방에 맞춰 명화원 원생 100여명과 재활교사 30명을 초청,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명화원은 신체장애자와 정신박약자들의 보호시설로 인천정유 임직원 70여명은 이날 홀로 거동이 불편한 원생들을 돌보며 보람있는 하루를 보냈다. 원생들은 벚꽃이 만발한 벚꽃동산을 산책한 뒤 장기자랑 시간을 갖으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인천정유

서구청장배 탁구대회 참가

인천정유 탁구동우회는 서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참가, 개인전 복식 우승과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지난 4월 29일 공무원 교육연수원에서 벌어진 이번 대회에는 개인전 복식에 14동, 단체전에 13개동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에쓰-오일

양치옥 소장 동해시 '모범시민상' 받아

목호저유소 양치옥 소장이 동해시 '모범시민상'을 받았다. 5월 3일 동해시 장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동해시장은 "에쓰-오일 양치옥 소장은 남다른 향토애와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에쓰-오일

울산시에 월드컵 기금 1억원 전달



에쓰-오일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억원의 기금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여혁종 부사장(총괄공장장)은 지난 4월 12일 오전 울산 시장실에서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는 「문수경기장」 가꾸기 기금 1억원을 심완구 시장에게 전달하고 “울산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체로서 2002년 울산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울산본부 지역발전
공로로 감사패 받아



에쓰-오일은 울주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3회 온산읍 공단 벚꽃축제」가 열린 지난 4월 8일 온산읍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이경순 1 공장 부공장장(사진 왼쪽)이 참석했다.

에쓰-오일

사이버동우회 「스타크래프트 게임대회」

사이버동우회는 지난 5월 10일 제2회 스타크래프트 게임대회를 가졌다. 이대회는 30여명의 사우들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게임을 펼친 결과 박의원(윤활유1과) · 배문홍(전기과)사우 조

가 우승을 차지했다.

에쓰-오일

윤활브랜딩 공장 KS표시 '우수' 판정

윤활브랜딩 공장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업체 정기심사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KS표시 인증공장인 윤활브랜딩 공장은 5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27일부터 4 일간 제품 품질·공정관리 등 6개분야 20개 항목에 대한 정밀평가 결과 “KS규격 이상으로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에쓰-오일

이규완 계장 '노사회합' 공로로
대통령 표창



품질관리실 이규완 계장이 노사회합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계장은 제 8대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를 맡아 노조발전과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남다른 노력을 해왔으며 동료들과 폭넓은 유대관계로 테니스, 서예 동우회 등 취미활동을 통해 정서함양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 계장은 4월 30일 울산노동사무소에서 대통령 표창장을 전달받고, 5월 16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사 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 참석했다.

에쓰-오일

울산 덕신·옥동초등학생 공장견학

에쓰-오일은 울산 공장 인근 덕신·옥동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초대해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장 견학행사를 가졌다. 교사 20명을 포함, 전체 817명의 아동을 맞아 에쓰-오일 실험연구소 강당에서 환영 인사와 기념품 전달 행사를 갖고, 회사소개와 석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개했다.

이어서 버스로 현장을 견학 한 아동들은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 외에도 우리 생활과 석유의 중요성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면서 “기름과 모든 물자를 절약하는 정신을 배웠다”고 즐거워 했다. 옥동초등학교 5학년 9반 김진성 선생님은 “막연하게 생각하던 정유산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준 계기였다”며 “석유에 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학생들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방문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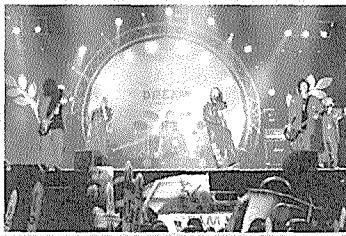
현대정유

주유소보탈사이트,
넥스테이션 본격 가동

유외사업분야 다각화와 e-비지니스

현대정유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01 드림콘서트



영원한 화합과 평화를 위한
지구촌 최대의 축제 2002년 한
일 월드컵! 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8만 청소년들이 잠
실별에 함께 모였다.

국내 톱 가수와 신인들 19개

팀이 총 출동해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01 드림콘서트'가 지난 5월 19
일(토) 오후 7시부터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시간 30분 가량 펼쳐
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을 위한 드림콘서트는 '2002년 한
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고 월드컵 봄 조성을 위해 공연의
주제를 「Viva-Korea」로 정하고 콘서트에 출연하는 모든 톱스타들과
함께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도 기원했다.

특히 이번 드림콘서트는 무대, 조명, 음향등에서 최첨단 장비를 동원
해 생생한 라이브의 감동을 그대로 관람객들에게 전달했으며 다양한
특수효과도 선보여 말그대로 '꿈의 콘서트'를 펼쳤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SBS가 주최하고 현대정유가 함께한 이 콘서
트에는 김현정, 드렁큰타이거, 박효신, 샤크라, 샵, 엄정화, 홍경민, 임
창정, 조성모, 조장혁, 코요테, 클릭B, 포지션, 핑클, GOD등 기존 가수
15개팀과 요즘 한창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싸이, 악스, 차태현, UN
등 신인가수 4개 팀 등 모두 19개팀이 출현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로
가수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강원래가 공연 마지막에 출현해 관심을 모
았다.

으로 연결해 주유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구입과 경영컨설팅 등을
도와주게 된다.

현대정유

즉석 경품대잔치



현대정유는 삼성카드와 제휴 1주년
을 기념한 대규모 '즉석경품대잔치'
를 벌인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동안 전국 2,300여개
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열리며 담채와
도자기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하게 된
다. 대상자는 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주
유금액에 상관없이 주유를 한 오일뱅
크 보너스카드 회원(3백만명)과 삼성
카드 회원(1천만명). 이들 중 매일 61
명씩, 총 2천여명을 전산추첨해 시가
90만원 상당(120ℓ)의 '담채 김치 냉
장고' (매일 10명)와 25만원 상당의
한국 도자기 디너세트' (매일 51명)를
무료로 증정한다.

사업 전개를 위해 현대정유와 LG칼텍
스정유가 공동출자한 주유소보탈사이
트, 넥스테이션(www.nextation.co.kr)
이 최근 본격 가동됐다.

넥스테이션이 주력하는 사업은 크
게 주유소 종합보탈사이트 사업과 주
유소 물류기지화 사업. 넥스테이션은
1만1천개 주유소를 초고속 인터넷망

현대정유

수출계약 담보부 해외차입

현대정유는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

정부은행인 웨스트엘비 은행과 1억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담보부 해외차입 약정서를 최근 체결했다.

이번 해외자금 차입은 수출대금을 담보로 조달한 방식으로 조달기업의 신용 리스크에 따른 금융상의 제약을 극복한 혁신적인 금융기법을 활용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적절한 장단기 자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조달 원천을 다각화함으로서 자금유동성을 개선하게 됐다.

현대정유

대신본사 직장예비군 최우수부대 표창

대산본사 직장예비군 중대가 향토 예비군의 날을 맞아 최우수부대로 선정됐다. 직장 예비역 중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충남지역 통합방위 본부장인 충남도지사의 표창을 받았다. 지역중대는 그동안 직장예비군 육성발전으로 국가 중요시설 방호태세를 완비하고 각종 재난대비 시범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공을 인정받았다.

현대정유

대산공장 공정정비 실시(T/A)

대산공장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1번 정제공정 설비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청소를 실시한다. 이

번 정비는 공장의 안전조업과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공정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외부업체와 공정별 직원 2만여명이 투입돼 벌어진다. 1번 정제공정은 정제 1, 2, 3과 크래킹 1, 2 그리고 발전1과로 구성돼 있다.

대산공장은 1번 공정 정비가 끝나는 대로 2, 3번 공정에 대해서도 자체 정비기간을 갖을 예정이다.

현대정유

국토대청결운동 '한마음' 동참

대산공장 직원들이 지난 5월에 실시된 지역내 국토청결운동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50여명의 당사 직원들은 삼길포 해안 일대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였으며 해안 주변의 오물 및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 지역 주민들의 호평을 얻었다. 직원들은 이번 운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심어준 만큼 하반기 국토대청결운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정유

대신직원, 서산시 1일 강사 활약

대산공장 직원들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산시내 중·고교에서 1일 강사로 활약했다.

직원들은 서산시의 요청에 의해 서산시내 유수 중고등학교에서 강단에

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의 강연시간을 가졌다. 서산시는 매년 스승의 날 1일 강사초청에 서산시내 여타 업체들을 제치고 대산공장 직원들을 초대하고 있다.

현대정유

T/A 협력업체 대표자 모임

대산공장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되는 1번공정 정기보수 작업의 사전대비를 위해 5월 15일 대산공장 행정동에서 협력업체 대표자 모임을 열었다. 환경안전부서 주관하에 마련된 모임에는 정기보수 작업에 참여하는 41개 협력업체 대표자들과 작업감독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현대정유

공장 무재해 100만인시 달성

대산공장은 지난 제 7차 공장무사고 100만인시를 5월 24일 달성했다.

100만인시 달성은 대산공장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한번의 사고도 없이 만들어낸 것이라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이번 100만인시 달성은 직원들이 지난해 200만인시 달성 직전에 연속된 사고로 안타깝게 공장을 정지시켜야 했던 일을 겨울삼아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한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

베트남 유전 매장량 4억 배럴

석유공사 SK 운영권 참여 4억2,000만불 순익 기대



한국석유공사와 SK가 운영권자로 참여한 베트남 유전이 경제성이 높고 추정 매장량도 4억 배럴 이상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 동쪽 144km 해상 15-1광구에서 실시한 제1차 평가정(SD-2X) 원유산출시험(DST)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평가정 시추결과, 15-1 광구의 총매장량이 지난해 예상매

장량 2억5,000만배럴보다 훨씬 많은 4억배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평가시추에서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 공동참여사 및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03년부터 조기 개발에 착수, 하루 3만8,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알제리, SK에 유전 공동개발 제안

OPEC(석유수출국기구) 의장을 맡고 있는 알제리의 차킬 켈릴 석유광물장관이 SK 최태원 회장에게 해외 유전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켈릴 장관은 SK를 방문해서 SK가 지난해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권을 따낸 페루 남부의 카미세아 천연 가스 유전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켈릴 장관은 SK와 함께 중국 에너지사업 진출 방안을 공동 모

색하고 E&P(해외 석유개발) 분야의 포괄적 상호협력을 제안했다고 SK 측은 전했다.

SK는 켈릴 장관의 제안에 대해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회원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가능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석유협회

Petroleum Club 세미나 개최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공학회

(회장 강주명)와 공동으로 2001년 제3차 석유개발동호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24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대 부설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Tony Settari가 「Reservoir Simulation: A Powerful Tool for Understanding and Managing Reservoir Complexity」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LG상사

해외시장 다변화 박차

LG상사를 비롯한 LG화학, LG전자 등 수출비중이 큰 계열사들은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현지생산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과 글로벌 브랜드로 공략, 올해 260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LG상사는 품목별로 전략시장을 선정, 공략하기로 했다. 플랜트의 경우 대규모 수주가 집중되는 중동시장에 힘을 집중, 해외 선진업체와 공동으로 복합 개발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PVC 등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거래선 개발과 중동지역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선을 확보해 “3국간 수출”을 강화하고, 전자 정보 통신 분야는 중남미 시장

에서 전략 품목의 판매선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3월까지 3사의 틈새 시장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중남미 48%, 중동 28%, 중국 14%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 원

유전발견 생산시험 작업중

동원은 지난 5월 16일 가스전 개발 보도와 관련 「아르헨티나 엘 비날라르 광구 Evn X-3정 시추작업 결과 3개의 정(아레나씨스, 뿐에스또 구 아르디안, 섹션카보네이트)에서 경제성이 뛰어나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다.

효 성

인천공항에 환경친화 소각로 준공

효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 소각할 수 있는 첨단(선희류)형 유동층 소각로를 준공, 가동한다고 밝혔다.

선희류 유동층 소각로는 모래를 데워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다이옥신 등 공해방지 효과와 경제성이 뛰어나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다.

이 소각장은 소각기능 뿐만 아니라 소각 후에 발생하는 폐열을 스팀으로 회수해 부대시설 운영에 활용하고 남은 열은 인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등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석유유통업 진출

삼성물산은 기존의 석유화학제품의 판매 및 유통망을 이용, 경유 및 병커C유, 수입사업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삼성물산이 석유화학 수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해 이번 석유유통업 진출이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신규사업 참가는 삼성물산에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자전송 서비스(SMS) 무선인터넷 사이트 접속 사이트 모바일뱅킹 원격제어 및 검침 동영상 전송 유무선 연동 이메일 시스템 구축 무선 인트라넷 시스템 물류, 고객관리 등의 부문에서 휴대폰이나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대상사는 지난해부터 원격제어 감시 솔루션, SMS 문자서비스, B2B 응용 솔루션 등 20여개 국내 무선 솔루션 개발업체들과 마케팅 부문의 제휴를 체결하고 이 부문에 대한 제품구성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독일의 핸드(무선 신디케이터), 대만의 소프트차이나(솔루션 유통 및 개발), 링크피플(솔루션 개발 전문)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계획이다.

삼환기업

1천 152억원 규모 인천공항 공사 수주

삼환기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물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를 1천152억원에 수주,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사지역은 1단계로 신공항1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단계로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이다

현대종합상사

솔루션 해외 마케팅 지원

현대종합상사가 국내 솔루션 업계들의 수출을 대행 또는 지원하고 최고 25%의 수수료를 받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현대상사는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형 무선 응용 솔루션 구축과 수출을 지원하는 콘텐츠-솔루션 신디케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기업형 무선 응용 솔루션은 무선

▶ 업계소식(WPC)

WPC 회원사 39개사로 증가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부문 5개사 가입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부문 5개 회사가 지난 5월 WPC 회원사로 신규 가입하였다. 이로써 WPC 국내 회원사는 39개사로 증가하였다.

- ▶ 한국서부발전(주) : 사장 홍 문신
- ▶ 한국남부발전(주) : 사장 이 임택
- ▶ 한국동서발전(주) : 사장 이 상영
- ▶ 한국남동발전(주) : 사장 윤 행순
- ▶ 한국중부발전(주) : 사장 김 봉일

(주) 한보에너지 : 사장 신 호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아시아 석유화학공업회의 참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회장 성재갑)는 국내 업체 대표단 132명과 함께 5월 24, 25일 타이완 타이베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TICC)에서 열리는 「2001 아시아 석유화학공업회의」에 참석하였다. 아시아 지역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 550여명이 참가하는 이 회의에서는 세계 석유화학의 투자전망 향후 10년간 화학산업과 관련된 기술교환 가능성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계획과 영향 아시아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 경쟁 등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가스 방문단 영접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최대업)는 지난 5월 15일 LNG13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동경가스 이토 위원장을 비롯한 일본가스협회 국제위원회 방문단을 영접했다.

최대업 회장은 협회를 방문한 이토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토 위원장은 「오는 2003년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세계가스회의(WGC)에 한국의 도시가스협회 회장

과 회원사의 많은 참가를 희망한다」며 「연료 전지 기술전시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협회는 이번 국제위원회 방문단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기술정보교류 등이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작년대비 104.8% 증가 예상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지난해보다 104.8% 증가한 4백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그룹의 설비 투자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조5천억 원이 늘어난 9조 5천억원으로 책정돼 그룹내 수주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올 1.4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증가한 2천5백10억원, 순이익은 97% 늘어난 70억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 발생한 선물환 손실을 지난해 모두 반영, 경영부실 요인을 모두 제거한데다 수익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차원에서 연초 일부 사업부를 경기도 수지로 이전한 덕분에 고정비가 절감됐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회 국제 동북아 심포지움 개최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장현준)은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제

1회 국제 동북아 심포지움을 6월 7, 8일 양일간 쉐라톤 워커힐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수요공급 현황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시각, 논의중인 역내 공동협력 사업의 추진현황 및 전망, 남북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 증진방안 등이 발표되고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대건설 잇따라 우수 시공업체 수상

현대건설이 도로공사, 철도청 등 발주처 및 지자체로부터 우수 시공사로 선정, 수상건수가 대폭 증가해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많은 품질시공 경험의 저력을 발휘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1년여 동안 품질 및 안전관리 등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해 총 7건의 공사에서 우수 시공사로 선정되어, 본사 및 일선 현장의 임직원들이 완벽한 품질시공과 안전관리를 통한 공사수행의 결과로 받은 기술력 평가로서 발주처로부터 신인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수상 결과는 기술력이나 시공경험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최고의 건설업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공사 수주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가스연맹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LNG13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김명규)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삼성동 COEX에서 한국가스연맹과 공동으로 에너지관련 대규모 국제회의인 LNG 13을 개최했다.

LNG 13은 3년마다 개최되는 천연 가스사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지난 '98년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서울이 제13차 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후 열린 것이다.

이번 행사는 21세기 들어 처음 열리는 LNG 분야의 국제회의로 세계 50여국에서 약 2500여명의 에너지업계 최고 경영자 및 전문가들을 비롯해 카타르에너지장관(AI Attiyah), 서호주 에너지개발장관(Hon Clive Morris Brown)등 국제적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LNG 13 전시회에는 세계 가스 업계의 선두주자인 BP, 쉘 앤슨모빌, 토탈 등을 포함해 가스 탐사 및 생산업체, LNG 선박 건조업체, 플랜트 건설 및 설계업체 등 약 120개 업체가 참가해서 각 사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 및 기기를 전시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에너지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인 LNG 13이 천연가스 사업분야에 대한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세계

제2위의 LNG 수입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내 에너지 산업의 기술발전 및 국제 선진화의 발돋움 계기가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현대중공업

호주 천연가스 생산설비공사 수주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은 최근 호주의 필립스사로부터 호주와 동티모르 공동구역의 천연가스 생산설비 공사를 미화 7천만달러에 수주,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가스시추 및 생산용 상부설비(DPP : Drilling, Production & Process Platform)1기와 거주구 및 부대설비(CUQ : Compression, Utilities & Quarters)1기를 제작해 호주와 동티모르의 공동수역에 위치한 바유 운단 필드BAYU-UNDAN FIELD)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가로 70m, 세로 65m, 높이 41m에 중량이 1만4천톤에 달하는 대형구조물 DPP와 이와 비슷한 크기의 CUQ는 각각 90m의 자켓위에 설치되어 수심 80m안 해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2003년 1월에 이 설비를 완공하여 천연가스 총 매장량이 3조ft³로 추정되는 (바유 운단 필드)에 설치하여 천연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